

[2024 총선 누가 뛰나] 전남<상> 중진 출마설·서삼석 3선 '촉각'

목포시 출마예정자(가나다순)



◇목포... '젊은 피 앞세워 다시 한번' 김현이 의원 재선 도전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지지기반인 전남 목포는 민주당 김현이 국회의원의 재선에 몇몇 후보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젊은 피를 앞세워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몰리친 김 의원이 재선에 성공할지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여의도 입성 이후 국회에서의 폭넓은 활동과는 달리 지역위원회의 잡음과 지방선거에서의 사실상 패배가 재선 가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1년 여 넘게 남겨두고 있는 현재 목포지역구는 일부 민주당 후보군들이 거론되는 정도다.
김현이 국회의원과 함께 KBS 기자 출신의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의 신재중 전 청와대 관계비서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윤석 전 국회의원 등이 사실상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윤석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고향이자 지역구였던 무안을 떠나 목포에 도전장을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당협위원장으로서 확정된 윤선웅 목포 새마을문고 이사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또 일부에서 불출마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강조하는 박 전 원장의 출마를 통한 설욕 여부도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들과 함께 민주당 잠재적 후보로는 이호균 전 전남도의장과 권옥 전 전남도 의원, 김한창 민주당 통합위원회 호남전략담당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정의당의 윤소하 전 국회의원의 출마도 관심사다.

◇해남·완도·진도...민주 공천권 다툼 속 박지원 출마(?) 촉각

해남완도진도 출마예정자(가나다순)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선 후보자가 난립하는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유재갑 의원이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당내 공천권 경쟁에 나선다. 해군 장성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여의도에 입성한 윤 의원은 전·후반기 모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안정적으로 지역 관리를 해온 게 차별화된 강점이다.
윤 의원에 맞서 당내에서는 김병구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가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경해남항우회 향토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최근 해남 법원 앞에 분소를 내면서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 전 원장의 출마 여부도 조마의 관심사다. 고향이 진도인데다 최근 해남·완도·진도에서 소통 행보를 하며 지역 정계 인사 등과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어서다. 4선 의원에 '영원한 현역'으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 입지가 커 출마 여부에 지역 정치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적 고향인 목포 출마 가능성도 있어 박 전 원장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영호 전 국회의원은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2008년 제17대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바다포럼 대표로 활동하며 해양전문가로 불리고 있다. 현재도 고향 완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역 바닥민심을 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관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정 보좌관은 국민주권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선거 사무소,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 비서관 등을 역임하는 등 당내 입지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웅 당협위원장이 출마의 뜻을 내비치며 지역 기반 다지기에

영암무안신안 출마예정자(가나다순)



◇영암·무안·신안...서삼석 의원 3선 도전에 대항마 '누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서는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재선의 전남도의원과 3선의 무안군수를 거친 서 의원은 지역내 폭넓은 지지층에도 불구하고 세번의 도전 끝에 지난 2018년 재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후에는 농수산해양분야의 전문가로 농어민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폭심을 보이고 있다.
서 의원의 3선 가도를 가능할 민주당내 경선에는 백재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김병도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사실상 도전장을 던졌다.
서 의원과 백 전 행정관은 박준영 전 국회의원의 중도사퇴로 치러진 지난 2018년 재선거와 2020년 총선의 민주당 경선에서 격돌했다. 이번 세번째 대결이다.
신안 출신인 백 전 행정관은 두번의 실패를 실욕하기 위해 2024년 총선을 염두에 둔 지역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또 무안 출신의 김 부의장도 출마에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 부의장은 최근 지역내 활동의 폭을 넓히며 얼굴 익히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3개 군을 아우르는 통합선거구인 영암·무안·신안에 영암 출신의 후보는 아직 없지만 누가 이름을 올릴지 관심사다. 일부에서는 3선 영암군수에 도전했다 고 배를 마신 전통령 전 영암군수의 출마가 오르내리고 있지만 미지수다.
국민의힘에서는 영암·무안·신안 당협위원장인 황두남 전 신안군의원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나서고 있다. 21대 총선 기준으로 해남완도진도 유권자 수는 15만 952명이다.

[2024 총선 누가 뛰나] 광주<하> 현역 의원 vs 잔뼈 굵은 지역정치인

◇북구 갑...현역 의원 vs 잔뼈 굵은 지역 정치인 '각축'

광주 북구 갑 출마예정자(가나다순)



북구갑은 21년 총선 당시 선거인수가 15만 5800여명으로, 인구 대비 선거인 비율이 90%에 육박해 광주 8개 선거구 중 가장 높다. 관할 행정동이 많아 투표구수도 가장 많다. 북구갑에서는 6, 7대 시의원을 거쳐 국회의원 재선 고지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맞서 현재까지 4~5명이 링 위에 오를 것으로 자전타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현역 의원과 지방정가에서 잔뼈가 굵은 풀뿌리 정치인 간 대결로도 관심을 모은다.

조 의원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재선 시의원으로부터 올해로 3년째 대한장애인사격 연맹을 이끌고 있는 문상필 회장과 지난 총선에서 조 의원에게 고배를 마시고 권도중래 끝 재출마를 준비중인 정준호 변호사, 1987년 김대중(DJ) 전 대통령 유세 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광역의원에 재선, 부의장까지 지낸 진성기 전 광주시 의원 등이 당내 경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6대 북구의회 의원 출신으로 N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동국 당협위원장이 출마 체제를 갖추고 있다. 소수 정당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제 8, 9대 위원장을 지낸 김주엽 전 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 겸 현 광주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굳히고 표발을 갈고 있다.
북구갑은 동남갑과 마찬가지로, 구정치 출마 여부가 관심사 중 하나다. 지역 정치에서 본인의 구구 부인에도 불구하고, 문인 북구정당의 출마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북구갑은 중흥1·2·3동, 중앙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 임동, 두암1·2·3동, 문흥1·2동, 오치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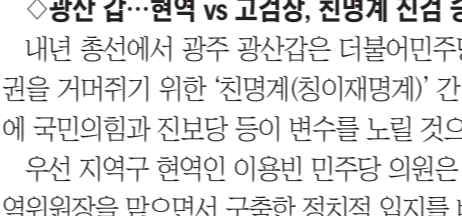
광주 북구 을 출마예정자(가나다순)



◇북구 을...이형석 재선 맞서 靑 행정관·진보정당 등 도전
북구을은 광주 8개 선거구 중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는 유일하게 20만명을 넘겼다.
북구을은 북구갑과 마찬가지로 현역 의원과 지방정치인 간 대결 구도다. 이형석 의원의 재선 도전에 맞서 전진숙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김민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황순영 정의당 전 광주시당위원장, 윤민호 전 통합진보당·민중당 광주시당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 조선대 법학과, 전남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 의원은 대표적 금융계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통한다. 광주시의회 의장과 광주시 경제부시장, 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지난 총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

막 비서관인 최경환 후보를 상대로 전국 최다득표(10만 8229표)를 승리했다.
전 행정관은 동신여고, 전남대를 거쳐 광주여성회장, 광주여성민우회 대표를 지내는 등 여성운동가로 활동하다 2010년 북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광주시의원을 거쳐 청와대 행정관으로 기용돼 사회혁신 플랫폼 등 지역·사회혁신 전국화를 이끈 장본인이고, '실폐박람회'를 전면적으로 실용성있게 전환시켰다.
국민의힘 김 위원장은 전남도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출신으로 현재는 호남사랑이사장을 맡고 있다.
윤 위원장은 신안 출신으로, 2014년 통합진보당, 2018년 민주당에서 각각 광주시당 후보로 출마했으며, 2012년과 2016년에는 각각 통합당과 민중연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조신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교육과 환경, 노동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황순영 광주 북구위원장이 나섰다. 광주여고, 전남대를 졸업한 뒤 호남대에서 조경학 석사과정을 마친 황 위원장은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 국민참여당을 거쳐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역임했고, 21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
북구을은 운암 1·2·3동, 용봉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양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광주 광산구 갑 출마예정자(가나다순)



◇광산 갑...현역 vs 고검장, 친명계 진검 승부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 속에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한 '친명계(청이재명계)' 간 뜨거워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이 변수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역구 현역인 이흥반 민주당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과 8년간의 광산갑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구축한 정치적 입지를 바탕으로 지역구 수성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당시 문재인 당 대표의 호남 영입 인제이자 2022년 이재명 대신 후보의 대변인으로서 민주당 내 단단한 네트워크를 가진 것이 최대 강점이다.
이에 맞서 검찰 출신 백규택 민주당 정치담당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거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총집약기'에서 현재는 사법적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조끼'로 변신한 박 부위원장은 최근 고향인 광산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부지런히 민심을 훑고 있다. '대변인 출신' 대 '변호인 출신'의 치열한 대결이 점쳐진다.
내년 총선을 통해 광주에서 최소 1석 이상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집권 여당 후보라는 점에서 현 정부와의 강한 '정치적 연결고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황경순 금호타이어노조 위원장이, 진보당에서는 정의성 진보당 공동대표가 출마를 밝혔다. 이들은 지역 내 '진보 표심'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21대 총선 기준 광산갑은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운남동, 동곡동, 월곡1·2동, 삼도동, 분량동, 평동 지역이다. 유권자 수는 16만 7593명이다.

◇광산 을...현역 '복당 딜레마' 속 '어게인 2020' 관심

광주 광산구 을 출마예정자(가나다순)



'편협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에는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과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재도전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을 둘러싼 '어게인 2020'을 예고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른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재선 도전에 중대 변수가 생겼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당이 보류된 상태이지만, 조직장악력이 여전히 대단히 친명계 핵심으로서 당내 입지도 두둑하다.
김 전 대변인은 산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대변인, 광주테크노파크 의장 등을 역임한 '산업통'이다. 중앙과 지역 경제계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당내 '경제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청와대 보좌진 출신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노무현재단 광주지역 위 공동대표, 시민의힘 상임대표 등을 역임한 관록을 심분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경선에 승리했지만 재경선 결과에선 민형배 당시 후보에게 패배하며 와신상담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출마 태세를 갖췄다. 정 전 선임행정관은 광주 출신으로 청와대, 국회, 기업 등에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정치 경력이 강점이다. 지난해 10월 광주혁신경제포럼 산하 광주혁신경제연구소 소장으로서 취임하면서 광산을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태욱 광산을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체제를 마치고, 본선 경쟁을 예고했다. 전주연 민주노동총괄본부 사무처장과 김용재 전 중소기업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위원장도 각각 진보당과 정의당 후보로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 기준 광산을은 침당1·2동, 비아동, 신가동, 신창동, 수안동, 하남동, 임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역 유권자는 23만 8229명이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언천로 213 스카이맨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00021 (원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